

밤 열 시가 가까워지면 학원은 수업이 끝나는 소리로 가득해진다. 의자가 밀리고 문제집이 덮이면 학생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온다. 선생님들은 그날 수업에서 틀린 문제와 다음 수업 자료를 이야기하며 퇴근을 준비한다.

어느 날, 남자 선생님 두 명이 교무실 앞에서 모의고사 문항을 이야기하는 동안 한 여자 선생님은 복도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학생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선생님은 학생을 돌려보낸 뒤에도 곧바로 가방을 들지 못했다. 교실을 돌며 남은 종이컵과 간식 봉지를 치우고, 결석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원 문을 나설 때는 이미 다른 선생님들의 퇴근 인사가 모두 끝난 뒤였다.

현관 앞에서 그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원장님, 수업은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수업 끝나고 남는 일은 왜 늘 같은 사람이 하죠?”

처음에는 조금 억울했다. 내가 누구에게 상담이나 정리를 강요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각자 잘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 온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여자 선생님들이 학생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정리도 꼼꼼하게 잘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키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수업이 끝난 뒤의 학원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결석한 학생에게 전화를 거는 일, 학부모의 긴 메시지에 답하는 일, 울고 있는 아이 곁에 앉는 일, 복사기 용지를 채우고 냉난방기를 확인하는 일. 수업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학원이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 일을 먼저 발견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었다.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본 사람이 했고, 해 오던 사람이 다시 했다. 문제는 그 순서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돌이켜 보니 나 역시 사람보다 성별을 먼저 보고 있었다. 전자칠판이 작동하지 않으면 남자 선생님을 찾았고, 학생이 울거나 학부모가 화가 나 있으면 여자 선생님부터 불렀다. 힘을 쓰거나 기계를 다루는 일은 남자에게, 마음을 달래고 분위기를 정리하는 일은 여자에게 더 어울린다고 나도 모르게 정해 두었던 것이다.

잘해서 계속 맡은 것인지, 계속 맡았기 때문에 잘하게 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다음 회의에서 나는 칠판에 ‘수업표에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선생님들과 하나씩 말해 보니 학생 상담, 학부모 연락, 교실 정리, 회의 기록, 비품 확인, 설명회 발표, 기기 점검, 마지막 퇴실 확인까지 열 가지가 넘었다. 그동안 아무도 업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했던 일들이었다.

회의에서는 내 잘못부터 꺼냈다.

“저부터 성별을 보고 일을 맡겨 온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계속 맡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었다. 모든 일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대신,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을 계속 못하는 사람으로 남겨 두지 말자고 했다. 처음 맡는 일은 경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돕고, 다음에는 역할을 바꾸기로 했다.

새 업무표에는 상담과 학부모 연락, 회의 기록, 교실 정리, 기기 점검까지 모두 적었다. 특정한 이름이 같은 칸에 계속 적히지 않도록 순서를 정했다. 첫 주 학부모 연락 칸에는 내 이름을 써 넣었다.

며칠 뒤 저녁, 학원 전화가 길게 울렸다. 수업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였다. 나는 습관처럼 옆자리의 여자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마침 그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벽에 붙은 업무표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삼십 분 가까이 이어졌다. 같은 설명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고, 상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메모만 내려다보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목이 바짝 말랐다.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던 선생님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주었다. 나는 물을 받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이런 전화 많이 넘겼죠?”

선생님은 잠시 나를 보더니 짧게 대답했다.

“폐요.”

그 한마디가 부끄러웠다. 나는 그동안 상담 결과만 보고받았을 뿐, 누가 긴 시간 동안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말을 받아 냈는지는 제대로 보지 않았다. 나에게는 가끔 생기는 일이 그 선생님에게는 늘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야 하는 하루의 마지막 일이었다.

업무표를 바꿨다고 모두가 곧바로 능숙해진 것은 아니었다. 한 남자 선생님은 울고 있는 학생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휴지만 건네고 한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상담을 마친 학생은 교무실을 나가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빨리 말하라고 안 해서 좋았어요.”

그 뒤로 그 선생님은 상담 차례가 돌아와도 다른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다. 설명회 발표와 기기 점검 역시 늘 하던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서로 도와 가며 해 보니 못할 일은 아니었다.

어느 저녁, 내가 교실에 남은 종이컵을 치우고 있는데 한 학생이 물었다.

“오늘은 원장님이 청소해요?”

나는 쓰레기봉투를 묶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내 차례야.”

몇 달 뒤 새로 온 선생님이 벽에 붙은 업무표를 보며 물었다.

“학생 상담은 보통 누가 맡아요?”

결에 있던 선생님이 날짜를 확인하고 말했다.

“오늘은 제가 맡는 날이에요.”

지금도 교무실 벽에는 새 업무표가 붙어 있다. 상담과 정리, 설명회 발표와 기기 점검이 같은 크기의 칸에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이름과 날짜만 있다.

업무표 하나를 바꿨다고 모든 편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원래 누가 하는 일인가” 보다 “오늘은 누구 차례인가” 를 먼저 묻는다.

나는 학생에게 했던 “오늘은 내 차례야” 라는 말을 앞으로도 우리 학원이 지켜야 할 약속으로 남겨 두고 싶다.